

중남미 농업기술 협력 지평 확대

조재호 농진청장, 파라과이·우루과이 등 차례로 방문 우루과이서 농생명 산업 발전 농업기술 협력MOU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남미 2개국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차례로 방문해 2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농업기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21일 아틀란티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을 방문해 산티아고 베르토니 농축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농업기술 공적개발 원조(ODA) 성과를 공유한 후 앞으로의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우리 측에 자국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을 늘려 줄 것과 주요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쇠고기 육수수, 잡곡 등 우수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대를 희망했다.

또한, 조 청장은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내용을 소개하고, 파라과이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파라과이 방문 기간 조 청장은 파라과이 농축산부 장관, 농업연구청장, 유

찬식 주파라과이 한국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남미 씨감자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학술토론회에서는 중남미 6개 코피아(KOPIA) 회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씨감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씨감자 생산 시설, 기자재 보강 및 생산기술 역량 강화 등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를 방문해 이삭 알피 계획 예산처장, 페르난도 마토스 축산농업 수산부장관과 함께 양국의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3차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체결식에는 이은철 주우루과이 한국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와 우루과이 관련 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동 연구실 설치, 공동연구 추진 전문가 파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우루과이 기획예산처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한대수 국무



파라과이를 방문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라울 실베로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총리가 남미 순방 시 관련 협력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전 세계적 관심사인 식량안보와 중남미 국가의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씨감자 생산기

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우루과이 농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아이들 건강한 성장 보탬 되길”

전은, 부안 졸포에 'JB희망의 공부방 156호' 오픈 개인사물함 설치지원 등 통해 학습 집중 도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부안군 졸포면 소재 이음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156호' 오픈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오픈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 김법식 부안지역점장, 이음지역아동센터 신영대 운영위원장, 백미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개소한 이음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5명에게 보호·교육·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아동들의 책가방과 소지품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로 학습에 불편함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아동들이 자율적으로 물품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을 설치해 센터를 더욱 넓고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했



다. 그리고 새로운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등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은행 김영민 부행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그동안 겪었을 불편함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유일의 향토은행으로서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재무구조 개선... 혁신 '구체화'

LX,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반성 토대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관한 반성을 토대로 고강도 혁신 방안을 구체화한다.

LX공사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 2년 간 전방위 혁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성적표를 받게 된 데에는 신설된 재무성과 지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제약, SOC 건설사업의 축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적시장 감소, 인력 효율화·업무 혁신의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지적측량으로 한정된 업무 범위, 기술 변화에 뒤처진 제도적 제약, 지적측량 수수료로만 운영되는 예산 구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재개산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2023년도 경영 환경 개선 및 정부경영평가 향상을 위해 수입 증대, 효율적 인력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도출한다.

LX공사는 지난 2년 간 발굴해온 지적측량 혁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고품질 지적서비스



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위탁업무(주소정보, 지하정보 등), 국정과제 수행(도매단지 디지털화, 도심하늘길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공적 업무 발굴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주력한다.

지적측량 수요 감소와 입체지적의 도입, 공간정보 위탁업무 확대 등 업무량 증감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 접수창구의 효율화 등에 노력하는 한편 자산 유통화 확대 등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강화한다.

LX공사는 디지털 SOC인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법이 민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만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공적 업무의 신규 위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욱기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농협발전상생협의회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28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2023년 남원시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농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관내 농·축협 임직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통 조직간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계통 사업별 정보 공유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한 농협의 역할 등 실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오영석 지부장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구현을 위해 소통·상생·협력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롯데백 전주점, 노인복지시설 사랑 나눔 무료급식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28일,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덕진구 소재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점점 더위치는 여름을 대비해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28일,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덕진구 소재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중기청, '주력산업 혁신네트워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28일 전북중기청에서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 주력산업 혁신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주력산업은 금년 2월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에 따라 크게 5개 중 3개 개편되었으며, 주축산업인 농생명바이

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그리고 미래신산업인 수전해 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이다.

네트워크는 전북중기청 및 전북도를 포함 중진공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5개, 전북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 대학 2개, 주력산업 대표기업 5개 총 19개의 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지역 어르신들의 부족한 영양 보충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랑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화점 직원, 전주시 자원봉사 연합회 회원 등 20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지역 어르신 및 소외계층 300여 명에게 300만원 무료급식 후 원금을 지원하며 사랑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었다.

강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은 "지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욱기 기자

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매 짝수달(적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된 네트워크는 구성 후 첫 번째 자리로서 네트워크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협의,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전라북도 산업 육성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으며, 대표기업들의 생생한 현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